

가치중립적인 순수예술은 악용에 무능한가?

201421712 문화콘텐츠학과 최 지우

서론- 예술지상주의의 불순함

베를린 필하모니의 상임지휘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나치 문화정책 협력 혐의로 전범 재판에 서게 되었다. 독일 내에 나치당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도 푸르트벵글러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로 망명하여 음악활동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독일에 남아 나치 음악정책에 부합했다는 혐의가 성립된 것이었다. 왜 독일에 남았느냐는 말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이렇게 답하였다. "나치 치하의 독일만큼 베토벤의 음악이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전범재판에서는 그를 무혐의로 석방시키고, 푸르트벵글러는 다시 베를린 필하모니 상임지휘자로 복귀해 전후 독일 음악계의 재건을 돕고 1954년에 생을 마감한다. 푸르트벵글러 외에도 많은 음악 예술인들이 연주하고 지휘했던 베토벤의 음악은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끊임없이 수요했다. 그러한 수요에는 현대 역사가 용납하지 않는 왜곡을 담고 있었다.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중의 환희의 송가 내에는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전 유럽에서 빛을 발한 이념 '자유, 평등, 박애'에 바탕을 둔 구절이었음에도, 대외적으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독일의 명분 역할을 수행하고 말았다.¹⁾ 현재까지도 그 명작의 여운을 남기는 베토벤의 음악마저 인간을 우롱하는 역할로 사용된 마당에 다른 수많은 예술품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을 지 예상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각주에서도 언급한 김대중씨는 이 상황을 시대적, 정치적 성격에서 가치 중심적인 음악이 특정 이념을 지닌 진영의 악용에 속수무책으로 열려 있는 사례라고 여겼다. '감동적인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의 위대함은 독일 민족의 위대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학적 감수성은 아리아인들만이 타고 난 능력으로 치환되었다.'라는 그의 말은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순수예술 지상주의자들의 말처럼 예술 자체는 지극히 가치중립적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 점을 따르다면 가치중립적인 순수예술은 장소, 목적,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예술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상자 개개인이 예술 감상의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추가로 친일예술인들의 행적을 옹호하는 논리인 재능론과 기여론이 순수예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친일 작품들이 한국 고유의 미적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면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김대중 씨는 이를 예술의 궁극적 가치가 작가의 세계관

1) <http://lastmarx.blog.me/60005795235>- lastmarx 김대중 씨의 글에서 발췌. 서론 전체를 그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음.

과 독자의 정신적 교감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관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그는 예술가들의 예술 행위가 목적론에 눈감은 채로 순수라는 말로 포장되는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될 악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론 - 예술사의 결과물

참여 예술론

미술을 포함한 예술은 사회와 무관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참여 예술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립되는 시각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사회의 이념 및 윤리로부터 예술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순수 예술론'이 해당된다. 문제의 시작은 두 관점의 충돌로부터 시작된다. 서론에서 소개한 김대중씨와 같은 참여 예술론에 가깝거나, 참여 예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미술에 감명 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술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예술이 내재하는 (옳을지 알 수 없을)가치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릇된 사상이나 생각이 관여된 예술가가 조금의 속임수만으로 순수한 대중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혐오하며, 이성적 판단 없이 그릇된 생각에 동조하는 대중들의 우매함을 한탄한다. 결국 모순과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대중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명백하게 표명하여 대중이 쉽게 접할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 그러한 힘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중립적인 '예술의 향유'

2) E. H. 고프리치는 그의 저서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는 '미술'이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뜻을 지닌다는 의미임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시대라는 단어에 집중해, 하지만 고프리치는 미술이 시대에 따라 다른 뜻을 지닌다고 서술함과 동시에, "미술가가 작품을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의 솜씨에 감탄한 나머지 그 작품이 본래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잊게 되는 것은 바로 미술가의 불가사의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라고도 하였다. 사상에 왜곡된 순수 예술에 옹호하는 것이 그 사상까지 옹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미술에 감복하였다고 해서 그 목적 자체까지 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³⁾

나치 독일의 행보는 위대할 수 없으나, 그 나치 독일 내에서 위대한 예술이라고 (마음 편치는 못하게) 평가받는 영상예술이 존재한다. 레니 리펜슈탈 감독의 <올림피아>를 비롯한 그녀의 영상들이다. 독일 영화감독이자, 배우, 무용가였던 그녀는 감독으로서의 미학과 혁명적인 촬영기법으로 예술적 측면에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2) E. 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예경, 1980, 601쪽.

3) 위의 책, 595쪽.

호평을 받으며, 20세기 최고의 여성 필름메이커라는 명예로운 명성까지 얻게 되었다. 다큐멘터리에 트레킹샷⁴⁾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슬로우모션 기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유명하게 알려졌다. 영국 유명 공영 방송채널 BBC는 그녀의 다큐멘터리를 기증기, 트레킹레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 개척적인 테크닉으로 평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분명히 <의지의 혁명(Triumph of the will, 1934)>와 함께 나치 전당대회 기록영화이자, 게르만 인의 우월성이라는 그릇된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에서 제3제국이 몰락함과 동시에 그녀는 나치 협력혐의로 투옥되었다. 결국은 무죄로 풀려났지만 나치 독일의 악명은 평생의 꼬리표로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름에 함축되고 표현된 정치적 맥락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지 역대 영화 100선에 포함되는 등 최고 영화 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등 예술적 측면으로서만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예술을 향유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예술이 함유한 사상에 대한 찬동이나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을 향유하도록 만든 동기, 수용자를 감동시킨 요소는 예술이 내재하는 사상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해당될 수 있다. 회화의 경우 필체와 채색의 조화가, 영상 예술의 경우 위의 레니 리펜슈탈의 작품과 같이, 연출이나 화면 구성이 그러할 수 있다.

가치의 투영은 예술의 '활용'에서 발생

물론 예술 감상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것이 쉽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분리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는 그릇된 사상, 생각이 담길 수 있는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참여 예술의 올바른 사상 및 생각과 그를 초월한 순수한 가치를 쫓을 수도 있다. 그 창작이나 감상을 하는 행위에서 사상을 따를지, 가치를 쫓을지 어떤 요소를 고려할지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상당수가 투쟁함으로써 얻어낸 이념 '자유' 아래에 예술을 향유하는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이다.

감상 영역과 정치 영역을 분간하는 것도 인문학과 미학, 혹은 그 이상의 지식 및 교양이 복합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뿐더러, 개개인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 혹은 정부와 같은 존재가 임의로 그 경계를 규정할 수 없다. 또한 그 경계를 어떤 수단으로 규정하더라도 수많은 부작용과 오류를 제거하지 못한 채로 사회에 등장할 우려가 존재한다. 결국 순수하게 감상영역만을 평가하고, 옳지 못한 가치를 거르거나, 배제하는 일은 지성을 어느 정도 갖춘 감상자로서 가능한 일이다. 지성이 확고하고 잠될수록, 예술에 정치적 가치를 악용하려는 유혹에 강해 질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탐구 없이 무작정 자신을 교양인이라는 걸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예술을 걸만 보곤 하며, 악의에 의해 왜곡된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휘둘리는 우매한 인간을 혐오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나, 미술가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곰브리치

4)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

의 말은 시대에 따라 미술이 다른 의미로 변모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술가들의 예술뿐만이 아닌 향유와 같은 행위도 함께 존재해왔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한 행위중 하나인, 특정 예술품을 향유하는 일이 파시즘과 같은 그릇된 사상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참여 예술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예술품에서 찾는다. 만약 예술이 올바른 사상을 지지하고 윤리성을 함유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예술은 높은 가치를 부여받아 마땅하다.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릇된 사상을 옹호하게 만든 책임은 예술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술의 향유를 사상으로 연결시킨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왜곡된 예술품이 아닌, 예술을 왜곡한 행위에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가치가 왜곡된 예술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선 레니 리펜슈탈의 예도 이를 뒷받침하며, 서론에서 언급했던 친일예술가들의 입장대로 자신들의 미술이 한국 미술계에 발전을 전해주는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공로 아닌 공로가 자신들의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치와 예술이 별개라고 해서, 그들이 예술에 대한 공헌으로 정치적 만행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저항 없는 순수가 반사적으로 옹호인가?

한 고등학교 수업시간, 교사가 <낙엽을 태우며>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 이 작품은 1930년대 말에 쓰인 작품인데 그 시절이면 일본의 식민 통치가 극에 달해 늦그릇이며 뭐며 다 빼앗겼던 참담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원두커피를 마시면서 품 잡고 낙엽이나 태우며 정취를 느끼니까? 이놈 지독한 친일파 아니었나요?”

그 교사는 그 자리에서 아연실색을 했다고 한다.

순수 문학이 얼마나 비순수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대표적 예라고 한다.⁵⁾ 사실 이러한 생각은 한국 근대사에 관심을 가져본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만한 생각이다. 1930년대 한국 문학에는 실제 역사에서 모더니즘이 도래하고 발전하던 시기였고, 이 모더니즘은 문학을 문학 외적 기능,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전의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자 했다. 그러한 목적은 주로 19세기 세계 각국이 정립한 ‘그들의 윤리, 도덕’을 재몽시키고자 했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심미주의에 의해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더니즘과 같은 사조가 지니는 순수함이 특정 사상에 대해 암묵적 동조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악용하려는 세력이

5) <http://ask.nate.com/qa/view.html?n=3216519> artidea 님의 답변 중에서 발췌. 이 일화가 실화일지 아닐지는 가늠할 방법이 없다.

예술을 왜곡하는 일은 있어도, 예술이 예술로서 자율성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인간 답고, 인간을 위한 미'를 유지하는 이상, 그 세력의 목적에 동의하는 일은 없다. 그 선을 넘은 것을 우리는 흔히 선전물이라고 규정한다. 순응의 반대는 저항이 아닌 순응하지 않음과 같다. 이는 저항에도 적용된다. 사실 저 학생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한국인들을 잠재적 친일파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마저도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항하지 못했던 한국인들과 독립 운동가들이 그저 같은 지위에 존재하는 의미는 아니다. 소시민들 사이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더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며,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예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론-진눈깨비는 먼지를 머금은 함박눈이다.

앞서 말한 모더니즘은 고도의 예술적 심미안을 지닌 일부 특권층 독자들 및 청중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엘리트주의적이며, 고답적인 예술이라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및 사회적 요소 없이도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순수 미술이 점점 현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중은 지성을 갖추었고, 현대 순수 미술이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며 사회도피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부에만 안주하려는 자에게 순수하게 평등하게, 그러나 어느 순간 찾아오는 '죽음'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순수 예술이 참여 예술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적인 면으로 발전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미술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짓말이다."- 파블로 피카소

거짓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예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부정하지 않는다. 태고의 역사에서부터 예술인도 사회에 속한 일원임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참여적인 예술이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만날 때, 사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 역사에서부터 증명되었다. 하지만 예술은 오직 그 자리에 있을 뿐, 예술과 관련되는 일의 끝에는 결국 사람이 존재한다. 사뿐히 지면을 향해 내려앉을 함박눈이 의도치 않은 먼지와 바람을 만나면 진눈깨비로 쌓이곤 한다. 순수 예술의 역할은 인간의 '함박눈'을 찾고자 하는 중립 지향적이며, 보편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적어도 참여 예술만큼이나 보편적인 활동인 것이다.